



金井議政

제2017-3호

2017년 3월 3일(금)

의회사무국 ☎ 519-5516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 의회 제249회 임시회

- 기 간 : 2017. 2. 24(금) ~ 3. 3(금) ▶ 8일간
- 장 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등
- 참 석 : 의원 전원
- 안 건
 -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 ▷ 제248회 임시회 보류안건 1건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정 일지

일 시	내 용	비고
2/2(목) 10:30	·부산시 의장협의회 2월 회의	의장
2/5(일) 14:00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착공식	의장
2/6(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2/6(월) 11:00	·금정구 자율방재단장 이취임식	의장
2/7(화) 10:00	·의회 의장단 회의	의장 의원
2/7(화) 10:30	·의원 정례간담회	의원
2/11(토) 16:00	·2017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	의장 의원
2/13(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2/14(화) 13:50	·부산광역시의회 민생현장 방문 (두구화훼판매장)	의장 의원
2/16(목) 15:00	·부곡2동 하수관로공사 주민설명회	의장

일 시	내 용	비고
2/19(일) 11:00	·금정구협회장배 탁구대회	의장 의원
2/20(월) 11:00	·제249회 임시회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2/20(월) 13: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2/22(수) 10:30	·2017년 부산시 통합방위 지방회의	의장
2/23(목) 13:30	·2017년 금정세계시민포럼	의장 의원
2/24(금) 11:00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장 의원
2/27(월) 10:00	·제24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보고회	의원
2/28(화) 10:00	·제249회 임시회 조례안검토(자체)	의원

주요 의정 활동

■ 2017. 2월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2017년 2월 7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를 비롯하여 평생교육과장의 금생도서관 건립계획 관련보고를 받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하였다.

또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과 의회 화장실 환경개선 및 본회의장 환경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 박종성의원 부산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지난 2월 2일 부산광역시의장협의회 주관 지방
 의정봉사상 시상식을 수영구의회에서 개최하여
 14개 구군에서 각 한 명씩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에서는 박종성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부산
 광역시의장협의회에서 부산시 기초의회의원 중
 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
 의회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금정구의회, 2017년 주민과의 대화 참석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금정구의 발전방
 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2017년 주민과의 대화』에 금정구의회 전의원
 들이 각 지역구 동 주민센터에 참석하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발전방향을 개선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2017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참석

지난 2월 11일 금정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한
 『2017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홍완표
 의장을 비롯한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행사에 참석한
 2,500여명과 함께 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타오르는
 달집에 기원하고 전통 세시풍속 계승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 하였다.



5분 자유발언

◆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2.24.)



박종성 의원

제목 : 장전2동 여자중학교 진학 여학생들의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하라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금정구의회 박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전동 지역의 여자중학교 문제, 특히
 장전2동 지역의 해당 학생들의 진학불편과 이와
 관련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온천4구역 재개발
 지역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 장전동지역의 만성
 적인 여자중학교 부재에 따른 교육환경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하여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당장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교육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
 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장전동 일대의 재개발 현황과 토지 사용에
 대한 여러 현황을 볼 때 이 같은 동래교육지원

청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이 지역 학부모들의 바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전2동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들 중 딸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만 되어도 인근 구서여중이나, 유락여중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의 자료를 통해 2016년도 금정초등학교와 금빛초등학교의 남,여학생의 6학년 재학 현황을 보시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2대 1로서 성비가 급격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빛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금빛남자초등학교’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쓰시며 안타까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학의 불편함 때문에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동래교육지원청은 팔짱만 끼고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장전2동 지역의 이러한 여자중학교 부재로 인한 교육환경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여자중학교의 신설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통학권의 조정으로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의 걱정을 덜어주고, 장전2동의 인구 유출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동래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장전2동 지역의 여자중학교 진학 학생들에게 인근 유락여중으로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통학권의 유연성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유락여중의 과밀성이 우려된다면, 단계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시고,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의 기부채납을 좀 더 확장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이 달라 어렵다는 동래교육지원청의 답변은 금정구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유락여중 진학으로 그 정당성이 희석되었습니다.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리적 특수성이 유락여중의 진학을 가능하게 했다면, 장전2동 학생들 역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은 교육을 받을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정책 당국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에 대해

과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역의 특수성을 담보하거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전동 지역은 신도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교육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더 이상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지역 여자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하실 생각입니까.

아울러 금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시민교육수도의 슬로건 아래 금정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기본과 원칙을 더 강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지금보다 더 철저한 대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육환경조성은 앞으로 금정구가 먹고 살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좋은 학교와 환경,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금성초등학교가 이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주민들께서 자녀들의 진학문제로 이리저리 이사다니시고,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 세밀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동래교육지원청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이런 민원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